

| 사회적 대화 국제동향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21~'23년도 의장 후보국 선출

손옥이 경사노위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위원회 7층 중회의실에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의장 후보국 선출을 위한 아시아 회원국 의결권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은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아시아 대륙사무부총장국으로서 차기(’21~’23년)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이하 연합) 의장후보국가 선정 회의를 주최하고 주관하였다.

연합 의장국은 2년을 임기로 대륙별(아프리카-아시아-유럽-남미) 순번제로 역임하며 차기년도는 아시아 순번이다. 이에 위원회는 아시아 이사국(중국, 러시아)을 중심으로 수차례 사전 실무회의를 통해 아시아 대륙 이사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사전 정리하였다.

한국은 타 국가에 우선권을 주되, 지원국이 없는 경우 의장국 검토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에 지원하기를 희망 한다는 입장을, 러시아는 의장국 지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사전 실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차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의장 후보국을 선정하기 위해 아르미니아, 중국, 러시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베트남, 한국 등 6개국 의결권자(위원장)가 한자리에 모였다.

* 아시아(유라시아 및 중동)대륙 회원국 수(11개국)
 (정회원) 아르미니아, 중국, 한국, 요르단, 레바논, 러시아 (옵저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준회원) 라오스, 마카오, 베트남

인사말씀에서 문성현 위원장은 “차기 의장 후보국 선정은 향후 연합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이므로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간의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기구연합 간 연대와 ‘연대’와 ‘협력’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의 초석을 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번 회의 개최 목적과 기대에 대해 밝혔다.

회의 순서는 개회 및 환영사,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안건논의, 차기의장후보국 소견 및 활동계획 발표, 토론순서로 이루어 졌으며, 안건논의 시 러시아시빅챔버연합은 의장국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만장일치로 러시아시빅챔버연합이 연합 의장후보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경사노위는 아시아 대륙 사무부총장국으로서 회원국들의 공식적인 동의로 결정 된 최종 결과를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의장국 선정은 연합 정관 제8조2항에 의거 9월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차기 의장국의 활발한 활동 및 협력을 통해 연합의 설립목적인 ‘전 세계 경제, 사회 파트너들 간 대화 촉진 및 노사정협의 기구 미설치 국가의 설립지원’과 ‘경제성장이 인간적, 사회적 목표와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적 발전 촉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 간 대화와 교류를 확대 하고 각 국가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